‘2015 서울 FCI 국제 도그쇼’
`15. 8. 28. – 8. 30.

JUDGE'S EYE

진행 : KKF 국제팀 김현정 과장

리 앤 베이트먼 인터뷰

먼저 3일간의 도그쇼 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네요. 이틀 간의 도그쇼에서 갑작스럽게 3일간의 도그쇼로 변경되었는데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사실 몇 달 전부터 한국에 오기만을 기다렸거든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오기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어요. (웃음)

그럼 하나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무엇보다 도그쇼 운영 면에서 최고 점수를 드리고 싶네요. 특히 도그쇼장은 정말 편리하고 좋았어요. 누구든지 쉽게 링을 찾을 수 있었고, 출진견들도 쉽게 입장하고 퇴장할 수 있었어요. 링 스튜어드는 경험이 풍부해 저를 아주 잘 도와 주었고, 제 통역 또한 최고였을 뿐 아니라 링 안에서 도와주는 사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팀이었어요. 제 팀을 가장 칭찬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애견연맹 운영진 또한 세계 최고라 말할 수 있는데, 정말 모두가 최고로 일했어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어요. 게다가 트로피, 로제트, 리본이 정말 아름다워서 상을 주는 제가 기쁠 정도였어요.

심사위원님께서 심사하신 견종에 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몇 견종은 정말 높은 퀄리티를 자랑했어요. 게다가 단지 몇 마리가 좋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준 높은 개가 20마리 이상이 있는 견종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베이비, 퍼피 클래스의 개들은 정말 훌륭했어요. 한국은 전체적으로 브리딩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3년 후에 이 개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꼭 확인해 보고 싶어서 다시 오고 싶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그룹은 역시 토이 그룹이었는데, 단지 출진 두수가 많아서만은 아니에요. 정말 두수만큼이나 퀄리티가 대단했어요. 각 클래스마다 왜 4위까지만 선정할 수 없는지 아쉬울 정도였으니까요. 최소한 6위까지는 선정하고 싶었어요. 그 중에서도 비숑 프리제, 말티즈, 프렌치 불독이 특히 기억에 남는군요. 또한 난생 처음으로 진돗개를 심사했는데 아주 인상 깊었어요. 오기 전에 스탠다드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가 만나본 진돗개는 스탠다드의 전형이어서 아주 기뻤어요. 그리고 불독도 좋은 개들이 많았고, 불 마스티프는 1마리기는 하지만 기억에 남는군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핸들링 수준이 우수했어요. 또한 한국은 애견 미용 수준이 정말 뛰어나더군요. 시츄, 요크셔 테리어, 비숑 프리제, 말티즈, 아프간 하운드 등 미용 수준이 놀라울 정도였어요. 미용 분야에 있어서 경쟁력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지요.
아, 그리고 사모예드 브리더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모예드는 샴푸를 아주 신중하게 골라 써야 해요. 잘못 썼다가는 모색이 블루 그레이로 바뀔 수 있거든요. 화이트 독을 위한 플레인 샴푸를 꼭 써야 합니다.

그럼 이제 베스트 인 쇼 심사에 대해 말해 주시겠어요?

베스트 인 쇼 라인업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라인업이었어요. 출진자 모두는 이를 자랑스러워해야 해요. 진짜로요

베스트 인 쇼 3석견으로 선정한 아메리칸 아키다는 놀라운 수준으로 아키다 타입에 부합한 인상적인 개였어요. 특히 올바른 쐐기 모양의 머리는 가장 나를 기쁘게 했어요. 또한 올바른 형태의 강한 주둥이가 눈에 띄었어요. 눈 또한 올바른 모양으로 아름다운 다크 브라운 색이었죠. 귀는 스탠다드에서 묘사한 대로 올바른 위치에 있었어요. 이 견종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목인데, 아주 강하고 튼튼했어요. 어깨도 잘 발달되었고 전체적으로 골격이 아주 좋았어요. 톱라인 또한 훌륭하였고, 허리는 짧고 견고했어요. 피모의 상태는 최상이었고, 각진 옆모습에서 이 개의 올바르고 정확한 윤곽을 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해서 보는 내내 즐거웠어요.

<'15. 8. 28. KKF 챔피언쉽 도그쇼 3rd BEST IN SHOW 수상견>
WICCA'S RULE THE AIR / 소유자 : MS. JO ANN CHARNIK

<'15. 8. 28. KKF 챔피언쉽 도그쇼 2nd BEST IN SHOW 수상견>
HIDDEN VALLEY B R8 / 소유자 : 성길제

2석견으로 선정한 토이 푸들을 보자 마자 처음 든 생각은 정말 토이 푸들 사이즈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개이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머리는 정말 아름다웠는데, 특히 옆 두개골과 주둥이의 조화가 완벽했지요. 어두운 눈은 정말 사랑스러웠으며 귀 또한 올바른 위치에 있었어요. 이 푸들의 전면은 옆면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었으며 톱라인 또한 정확해서 움직일 때 민첩하면서도 유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요. 특히 피모는 어찌나 훌륭했는지요! 촉감 또한 너무 좋아서 만질 때 기분이 좋아졌으며 미용 또한 최상의 상태였어요. 이런 토이 푸들을 심사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요.

이제 **베스트 인 쇼 수상견**에 관해 말할 차례네요. 이 **불독**이 제 링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불독이라는 견종을 만날 때 기대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개였어요. 즉, 불독이란 이래야 한다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 주고 있었어요. 머리는 당당함과 우아함을 표현하고 있었고, 특히 튼튼하고 넓은 턱이 정확하고 올바른 머리 형태를 만들어 주었어요. 두개골의 너비 또한 정확해서 눈을 잘 보호하고 있었고요. 목 또한 튼튼했고, 톱라인은 전혀 과장 없이 올바른 형태였죠.

전체적으로 골격이 아주 좋았어요. 특히 이 불독은 걸을 때 완벽한 움직임을 보여 주었는데, 뒷발이 강하고 정확한 상태로 유지되어 앞발은 정확한 타이밍으로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근육 뿐 아니라 컨디션은 놀라울 정도로 최상이었으며, 움직일 때마다 이 불독이 가진 힘과 골격을 느낄 수 있어 좋았지요. 정말 최고의 불독이었어요. 이 불독을 제 링에서 만날 수 있어서 영광일 정도입니다.
(리 앤 베이트 심사위원이 워낙 자세하고 전문적으로 심사평을 하여 중간중간 계속 확인하며 심사평을 옮겼다.)

<'15. 8. 28. KKF 챔피언쉽 도그쇼 BEST IN SHOW 수상견>
MAJOR LEAGUE POP-A-TOP ROLL OF THE DICE / 소유자 : 구지성

정말 상세한 심사평 감사드립니다. 견주 및 핸들러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훌륭한 개들을 만날 수 있어서 오히려 영광이지요. 모두들 자랑스러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께 꼭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밝히진 못해도 저를 마치 가족처럼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심사위원님께서는 만난 모든 사람뿐 아니라 출진견에게도 친절하셔서 모두가 심사위원님을 좋아했습니다. 다음 번에 꼭 다시 만나길 기대할게요.

네,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리 앤 베이트먼(캐나다)

Ms. Lee Ann Bateman

CKC 전견종 심사위원

리 앤 베이트먼 심사위원은 사모예드, 시츄, 저패니즈 친 브리더로 수많은 챔피언견을 배출하였으며 특히 'Snowghost' 견사호 아래 브리딩한 사모예드로 수년간 캐나다 탑 랭킹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그레이하운드, 포메라니언, 시베리안 허스키, 바셋 하운드, 저먼 셰퍼드 독도 함께 브리딩하고 있다.
1999년부터 도그쇼 심사를 시작하여 미국, 캐나다 전역뿐 아니라 호주, 브라질, 콜롬비아, 덴마크,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 심사하였다. 또한 사모예드, 도베르만, 빠삐용 스페셜티쇼에서 심사한 경력이 있다. 본래 직업은 예술가 및 작가로 도그쇼 심사는 그 어느 일보다 즐겁다고 한다.

히로시 가미사토 심사위원 인터뷰

먼저 작년 12월 절친이신 에드 비빈 심사위원 격려 차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심사위원으로 다시 꼭 방문하시길 부탁드렸는데 약속을 지키셨어요.

네, 한국에서는 2009년 이후 심사한 적이 없어 꼭 다시 심사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한국의 가장 큰 도그쇼에서 심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사이 영어 실력은 더 느신 것 같습니다(웃음).

사실 지난 달 피지에서 어학원을3주 동안 다녔습니다. 저를 제외한 어학원 학생 대부분이 10대여서 학생들이 저를 보고 놀라기도 했지요(웃음). 그 학생들에게 할아버지 뻘이었지만 저는 전혀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지요. 제가 어디서 10대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대단하십니다. 외국어를 배우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사위원님의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번 도그쇼에 대한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도그쇼 운영은 말할 것도 없이 도그쇼 장소가 너무나 훌륭하였어요. 도그쇼를 개최하기에 최상의 장소였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출진견들의 퀄리티 또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핸들러들의 실력 및 매너 또한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쇼에 출진하는 브리더, 견주, 핸들러의 성공적인 세대 교체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심사한 심사위원에 대해 꼭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심사위원들만을 골라 초청했어요? 제가 30년 넘게 심사를 하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 심사위원들만 초청되었더군요. 같이 심사한 것만으로도 영광이었습니다. 저를 함께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즐거우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럼, 8월 30일 개최된 AKU 챔피언십 도그쇼 베스트 인 쇼 심사를 맡으셨는데, 여기에 관한 심사평을 부탁드립니다.

베스트 인 쇼 링에 올라온 개들은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대단했습니다. 먼저 **3석을 차지한 베들링턴 테리어**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저는 토요일에 이 베들링턴 테리어를 심사하였는데, 퀄리티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BIG로 선정하였지요. 일요일 베스트 인 쇼링에 올라온 테리어는 토요일과 비교하면 상당히 지쳐 있었으나 본래의 퀄리티 자체는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트리밍은 완벽하게 되어 있었으며, 실루엣이 흐트러짐이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워킹 또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였습니다.

<'15. 8. 30. AKU 챔피언쉽 도그쇼 2nd BEST IN SHOW 수상견>
MCMAGIC'S SHREK FOREVER AFTER / 소유자 : 이용재

베스트 인 쇼 2석을 차지한 사모예드 또한 재미있게도 토요일에 제가 심사를 본 견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개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쇼맨십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사모예드는 머리가 엄청나게 매력적이었으며, 골격 또한 아주 훌륭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사모예드로 가장 이상적인 당찬 워킹을 선보였습니다.

최종 베스트 인 쇼로는 비숑 프리제를 선정하였는데, 베스트 인 쇼견으로 제가 자신 있게 선정할 만큼 견종 자체의 퀄리티와 완성도가 뛰어났습니다. 특히 얼굴이 매우 매력적이었으며, 앞뒤의 앵귤레이션이 똑바르고 전체적인 균형이 아주 좋았습니다. 피모 관리 상태가 아주 좋았으며, 이 날 컨디션 또한 아주 좋아 최상의 워킹을 선보였습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15. 8. 30. AKU 챔피언쉽 도그쇼 BEST IN SHOW 수상견>
THECHON PURE PROPAGANDA / 소유자 : 허진

상세한 심사평에 감사드립니다. 그 외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진도견을 포함한 모든 견종들의 브리더, 핸들러들이 지금보다 더 개에 관하여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자신의 견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역사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부학을 공부하면 개의 움직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개의 스탠다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교육의 기회가 많아져서 모두가 자신의 견종 뿐 아니라 모든 견종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체계적으로 양성된 사람들이 결국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심사위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한국에서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한국에는 언제라도 다시 오고 싶습니다. 꼭 다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웃음).

히로시 가미사토(일본)

Mr. Hiroshi Kamisato

FCI/AKU/JKC 전견종 심사위원

히로시 가미사토 심사위원은 아메리카 코커 스파니엘을 브리딩하여 큰 명성을 떨쳤으며 그레이트 댄, 스코티쉬 테리어, 말티즈, 이탈리안 그레이 하운드, 친 등도 함께 브리딩하고 있다. 1986년 JKC 탑 브리더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하였다. 1978년 아메리카 코커 스파니엘 심사 자격 승인을 시작으로 1984년 전견종 심사 자격을 획득하였다. 가미사토 심사위원은 특히 FCI 월드 도그쇼에 주로 배정되는 심사위원인데, 1997, 1998, 2000, 2002, 2009, 2011, 2012, 2014년 월드 도그쇼 뿐 아니라 2011년에 개최된 FCI 100주년 기념 챔피언 도그쇼에서 심사를 맡기도 하였다. 아시아 및 유럽 국가 전역, 영국, 미국, 남아메리카의 국가에서 활발한 심사를 계속하고 있다.

탄오혹 심사위원 인터뷰

심사위원님은 워낙 바쁘신데 이번 3일간의 도그쇼에 한국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제가 이렇게 훌륭한 도그쇼에서 심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주였어요. 게다가 히로시 가미사토, 바바라 뮬러를 비롯한 오랜 심사위원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더욱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심사위원님께서는 2~3년마다 한국을 방문하셔서 올 때마다 변화된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심사위원이실 겁니다. 이번 도그쇼는 어떻게 보셨나요?

항상 올 때마다 더욱 발전하는 모습에 놀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도그쇼장의 최고의 시설에 놀랐습니다. 게다가 도그쇼장뿐 아니라 많은 상업부스 규모에도 놀랐구요. 한국은 올 때마다 출진 두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다음 방문 때에는 이번 출진 두수의 2배가 넘지 않을까요?(웃음) 링 스튜어드를 비롯한 도그쇼 스탭들도 아주 잘 운영되었어요. 한 마디로 한국은 아주 훌륭하게 도그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심사하신 견종 중 어떤 견종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무엇보다 금요일 토이 그룹 스페셜티쇼 심사를 보았는데 이 그룹의 모든 견종이 정말 쟁쟁했어요. 정말 한국에서 9그룹 BIG가 되기는 정말 힘든 일이겠어요. 하지만 심사위원으로 이 그룹을 심사하는 일은 정말 즐거운 일이었어요.

포메라니언은 정말 엄청난 출진 두수를 자랑했는데 약간 실망스러운 포메라니언을 보기도 했어요. 몇몇 포메라니언의 경우 눈과 두개골이 둥근 형태거나, 주둥이가 너무 짧거나, 사이즈가 너무 큰 경우가 있었지요. 어떻게 보면 다른 견종과 섞인 형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포메라니언은 머리가 여우처럼 생겨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주 프로답게 링 안에서 선보인 점은 칭찬하고 싶네요.

8월 28일 개최된 9그룹 스페셜티쇼와 8월 29일 KKF 챔피언십 도그쇼의 최종 심사를 맡으셨는데 각 심사평을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스페셜티쇼의 최종 BISS견은 빠삐용**이었는데, 타입이 완벽했고 사이즈도 적당했으며, 특히 균형감이 좋았습니다. 머리의 표현력 또한 훌륭했으며, 등은 견고했고, 꼬리 또한 올바른 위치에 있었어요. 앞발로 똑바로 서 있었고, 뒷발의 앵귤레이션 또한 좋았어요. 피모도 훌륭했고, 컨디션 또한 좋아 완벽한 움직임을 보여 주어 BISS견으로 선정한 거지요.

제가 앞에서 말한 대로 9그룹은 너무나 강력하여 3마리만 선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힘들었어요. 전 사실 빠삐용, 프렌치 불독, 시츄, 비숑 프리제, 차이니즈 크레스티드 독, 롱 헤어 치와와, 토이 푸들, 말티즈, 이렇게 8마리를 선정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그 어떤 개라도 1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 날의 컨디션에 달린 것일 뿐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한국의 9그룹은 그 어느 나라보다 쟁쟁한 그룹입니다.

<'15. 8. 29. KKF 챔피언쉽 도그쇼 BEST IN SHOW 수상견>
MAJOR LEAGUE POP-A-TOP ROLL OF THE DICE / 소유자 : 구지성

KKF 챔피언십 도그쇼의 최종 베스트 인 쇼견으로는 불독을 선정하였어요. 역시 완벽한 불독 타입의 개였으며 콤팩트한 체구에 균형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사각형의 머리는 아주 사랑스러웠고, 튀어나온 아래턱 또한 훌륭했어요. 귀는 올바르게 높이 위치해 있었으며, 등도 튼튼했으며, 꼬리 또한 올바른 형태였어요. 특히 앞발과 뒷발 모두 정확하게 땅을 디디며 나아가는 움직임이 아주 훌륭했어요. 이 불독이 멋진 워킹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는 모습을 보는 일은 정말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심사를 보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저는 심사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견종을 견종답게 만드는 타입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다음은 건전함, 퀄리티, 균형, 스타일, 움직임 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를 초청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애견연맹 임직원, 운영진, 스튜어드 등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또한 멋진 개들을 브리딩하고 선보인 출진자 여러분께서 깊은 감사함을 표합니다. 다시 한국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네, 심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뵙기를 기원합니다.

탄 오혹(말레이시아)

Mr. Tan Oo Hock

FCI/AKU/MKA 전견종 심사위원

탄오혹 심사위원은 1977년부터 저먼 셰퍼드, 도베르만, 복서, 퍼그, 닥스훈트, 로트바일러, 미니어쳐 핀셔와 푸들(토이, 미니어쳐)을 브리딩하며 도그쇼에 출진해 왔으며, 특히 저먼 셰퍼드와 퍼그 전문가로 명성을 떨쳤다. 1983년 최초 심사 자격을 획득하였고, 1996년 전견종 심사자격을 획득한 이래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필리핀, 인도, 중국, 대만, 한국,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러시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등 셀 수 없이 수많은 나라의 쇼에서 심사하였다. 1995년 호주 시드니의 저먼 셰퍼드 스페셜티쇼에서 최초의 아시아 심사위원으로 초청된 이후, 2000년 시드니 및 2001년 브리즈번의 저먼 셰퍼드 스페셜티쇼에서도 심사하였다. 또한 포메라니언, 도베르만, 복서, 로트바일러, 골든 리트리버, 퍼그, 미니어쳐 핀셔의 스페셜티 쇼에서 심사한 경력을 자랑한다. 20년 이상 말레이시아켄넬클럽 산하 위원회의 회장 및 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수년간 AKU의 이사 및 총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